경상도 불교 유물 얼마나 될까?

국립경주박물관 '경상북도 1314~1896'

국립경주박물관(관장 이영훈)은 상주박물관과 공동기획한 경상도 개도(開道) 700년 기념특별전 '경상북도 1314~1896'을 9월 14일까지 연다.

올해는 '경상도(慶尙道)'라는 도명(道名)이 사용된 지 700년이 되는 해로 '경상도'라는 이름은 경주(慶州)와 상주(尙州)에서 따왔다. 도명의 유래지에 위치한 국립경주박물관과 상주박물관은 이를 기념하기 위해 '경상북도'에 대한 특별전을 공동으로 기획했다. 특히 전시에서는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목조관음보살윤왕좌상, 석조금강역사입상 등 불교 관련 유물도 선보여 눈길을 끈다.

목조아미타여래좌상(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은 불상으로 나무를 깎고 덧대어 만든 뒤 표면에 옻칠하고 금니를 칠해 마무리했다. 제작 연대가 확실하여 조선 전기 불상 연구에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작품으로 조선 1482년(성종13) 다밀지의 정수사에서 관음 · 지장보살과 함께 삼존으로 제작된 아미타여래다.

목조관음보살윤왕좌상(국립경주박물관)은 조선 15세기경에 조성된 높이 54cm의 불상이다. 이 보살상의 가장 큰 도상적 특징은 오른쪽 무릎을 세운 뒤 그 위에 오른팔을 올려놓고 왼손을 몸 뒤로 짚은 윤왕좌(輪王坐)의 자세이다. 이 자세는 고려시대부터 수월관음(水月觀音)의 특징적 도상으로 관음보살임을 알 수 있다.

석조금강역사입상(국립경주박물관)은 높이 100cm의 조선 후기 작품이다. 부릅뜬 큰 눈, 큼직한 코와 입의 표현에서 조선 후기 불상에 공통적으로 보이는 해학성이 느껴진다.

경주박물관 임재완 학예연구사는 "종교는 시대 상황이 어려울수록 그 신앙이 더욱 굳건해지는 경향을 띠게 마련이다. 숭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등 시대 반영한 작품 '주목'

유억불정책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조선시대 경상도의 불교문화재들은 이와 같은 시대적 상황을 확인할 수 있게 해 준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전시에서는 경상북도의 자연환경, 인물, 사건, 이야기 등 경상북도와 인물에 관한 다양한 면모를 살펴 볼 수 있는 200여 점의 문화재가 전시된다. 또한 10월 12일~12월 29일까지 상주박물관에서도 동일한 전시가 개최된다. (054)740-7588

정혜숙 기자





경상도 개도(開道) 700년 기념특별전 '경상북도 1314~1896'이 9월 14일까지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린다. 목조아미타여래좌상(사진 왼쪽)과 석조금강역사입상

자비의 '관음' 세상 상처 어루만지네

젊은 작가 모임 부디스토리 3회 전시… 8월 20일 인사동 갤러리M



2013 전시 오프닝에 참여한 부디스토리 작가들

젊은 청년작가들이 모여 톡톡 튀는 개성으로 풀어낸 '관음'은 어떤 모습일까? 전통 불화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가 하면 그리스 신화 여신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둥근 원으로 모인 대중을 통해 전혀 새로운 모습의 관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언제 어디에서나 우리 곁에 나타나는 관세음보살이 12명 젊은 작가의 시선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부디스토리(회장 예상희) 3회 전시 '관음'이 8월 20일~26일 인사동 갤러리M에서 열린다. 권지은, 김민지, 김윤정, 서혜진, 신지영, 예상희, 오선혜, 이혜원, 정해진, 출팀놀부, 현승조, 호종현 12명의 작가들이 '관음'을 주제로 한 작품 12점과 꽃을 소주제로 하는 24작품을 선보인다.

부디스토리는 각기 다른 전공의 20~30대 청년들이 모여 불교를 주제로 작품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젊은 작가 모임이다. 이들은 서양화 동양화 조각 전통불화 티베트 미술 등 다양 장르의 미술 전공자들로 이루어졌으며 서울 부산 충남부여 등 사는 곳도 각기 다르지만 회원들은 불교로 뭉쳤다. 전통불화를 현대적 언어에 맞게 표현해내고자 한 것이다.

부디스토리 예상희 회장은 "'부디스토리'는 'Buddhist'와 'Story'의 합성어로, 불교와 부처님 그리고 불교인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풀어내는 젊은 불화 작가들의 모임"이라며 "불화(佛畵)라고 하면 '어렵다'라는 인식을 바꾸기 위해 작가들이 모여 대중들과 좀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불화 전시를 기획하게 되었다"며 취지를 전한다.

3회 전시의 주제는 관음이다. 예 회장은 "최근 세월호 사건 등 사회적으로 가슴 아픈 일들이 많았다.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치유해주는 관음의 자비사상을 그림으로 표현해 국민들의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해보자는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한다.

천수천안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도, 어람관음도 등 한눈에 봐도 불화라고 할 수 있는 작품들이 있는가하면 전혀 색다른 주제의 관음도 만날 수 있다. 정해진 작가의 '호피명작'은 그리스 아테네 여신의 모습에서 관세음보살의 모습을 이끌어낸다.

전공 다른 12명의 작가들 모여 불교 소재의 다양한 작품 선보여 내년 일본 등 해외전시 계획도

또한 오선혜 작가의 '0'은 원을 이루고 있는 대중들을 통해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수많은 이들이 원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간간이 정병 연꽃 등을 통해 관음도를 연상케 하는 동시에 평범한 젊은 남자의 모습을 하고 광배를 두른 부처님이 중간에 위치해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오 작가는 "전통 불화를 공부했지만 저만의 이야기로 관음을 풀어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원이라는 주제를 통해 이 세상에는 선도 악도 없으며 누구나 부처님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불교미술을 전공해도 종립학교나 종단 차원에서의 전시기회나 작품을 선보일 기회가 전혀 없는 것이 사실이다. 청년들이 자비를 털어 3년을 인사동에서 전시회를 열고 있는 부디스토리의 활약은 그래서 무척이나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또한 내년부터는 일본 전시를 시작으로 미국 유럽 등 해외 전시도 기획 중이라고 하니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사불작가이자 전시기획자인 출팀놀부는 "내년 가을 즈음 오사카의 사찰 갤러리를 순회하면서 전시를 열 예정이다. 현지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어 매우 긍정적이다. 더 나아가서는 미국과 유럽까지 진출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중에 있다. 앞으로도 계속 한국의 전통문화인 불교미술을 젊은 작가들의 시선으로 새롭게 해석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싶다"며 계획을 전했다. (02)737-0073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젊은 작가들의 모임 부디스토리의 전시 '관음'이 8월 20일~26일 인사동 갤러리M에서 열린다. 사진은 ①예상희의 '백의관음' ②출팀놀부의 '천수천안관세음보살' ③오선혜의 '0' ④정해진의 '호피명작'

천상의 목소리로 평화를 노래

아니 초잉 돌마 '귀의송' 발매

네팔의 비구니이자 국민가수인 아니 초잉 돌마가 '관세음 보살이 현현(顯現)한 듯 장엄하면서도 자비심이 울려 나오는 천상의 목소리'로 나지막이 읊조리듯 '귀의송'을 창송(唱頌)한다. 종교를 초월한 진정한 마음의 평화와 위안을 주는 아니 초잉 돌마의 베스트 셀러작 '귀의송'이 콘텐츠코리아에서 발매됐다.

아니 초잉 돌마가 티베트 불교의 '사귀의문(Four Refuges Prayer)'을 창송(唱頌)하는 앨범으로 런닝 타임이 45분에 달하며, 1개 트랙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해금과 유사한 티베트 얼후인 삐왕(Piwang), 티베트의 민속 기타라고 할 수 있는 다녠(Dranyen), 티베트 피리인 링부(Lingbu), 현대의 프레임 드럼의 일종으로 사찰의 의식에 자주 사용되는 나(Nga), 티베트 불교의 경건한 예불의식에서 사용되는 작은 벨(bell)의 일종인 띵샤(Tingsha), 기타, 베이스, 바이올린 등 전통 및 현대악기 소리에 맞춰 아니 초잉 돌마가 챈팅하고 있다.



아니 초잉 돌마의 베스트 셀러작 '귀의송' 표지

찬트의 멜로디와 음악 작곡 및 편곡은 네팔에서 20여년 이상 밴드의 멤버, 작곡가, 편곡자, 세션 연주자로서 다양한 음악활동을 해온 페마 왕디 라마(Pema Wangdi Lama)가 맡았다. 1661-3164

정혜숙 기자

채색화 속에서 만나는 부처님 미소

유광상 불화전 8월 20~30일

유광상 불화전이 8월 20~30일 불일미술관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철학과 불교역사를 담은 좌불상 연꽃 수호신 등의 작품을 선보인다.

유 작가는 "오랜만에 불교미술 작품전을 개최하게 됐다. 전통불교미술을 현대미술과 결합해 대중과 함께 할 수 있는 순수 회화 작품을 그려내고자 노력했다. 대중적인 철학, 불교역사적 이미지, 해학, 휴머니즘으로 풀어 인간적인 순수함을 예술적으로 펼쳐내고자 했다"고 전했다.

그는 먹의 퍼짐과 농담의 신비함, 채색의 분채를 통한 은은한 색의 혼합을 통해 작품 전체에 신비감을 더했다. 유 작가는 "좌불상 작품은 연꽃과 수호신을 배경으로 먹의 향기와 동양적 정서의 극치를 보이면서 부처님의 자비를 표현했다. 또한 반가사유상의 원형에 가까운 금불상이 변화되어 가는 색의 원형을 찾고자 했다. 우주속의 반가사유상에 대한 인간 구원의 바람, 부처님의 은혜를 담았다"며 작품에 대해 설명했다.(02)733-5322

정혜숙 기자



부처님의 자비를 표현한 '불심'

찬덕연등의 기술을 보유한 연등시공 전문기업

BORYEON 보련기획

특가행사 진행중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연등시공





만 월 등



바 림 등



자 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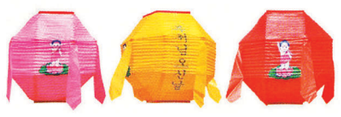


정품 LED전구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1년 하루 6시간 전기요금 : 98원/1kwh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팔각주름등



공 단 등



팔 각 접 등



연꽃만월등



연 화 연 등



차 걸 이



인 등



BORYEON 보련기획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문현로 189번길 27

H·P 010-9446-1862
전화 031)526-2201 / 031)526-2202